

<예민함의 쓸모>

결혼으로 한창 마음이 달떠서 바쁘게 지내던 어떤 날이었다. 조수석에 앉아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여름 냄새에 한 눈 팔고 있던 내게, 운전을 하던 신랑이 갑자기 말을 붙였다.

“우리, 이사 왔는데 옆집에 떡이라도 하나 돌려야 하지 않을까?”

“떡? 90년대도 아니고. 자기도 떡 있어도 먹지도 않잖아.”

“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생각해 볼게.”

여간해서는 만죽 거는 법 없이 결혼 준비도 ‘그래그래’ 하며 소탈하고 무디게 넘어갔던 나인데,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 신랑이 의아해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넘겨주고서 콧노래로 의뭉한 분위기를 쫓으며 그 날을 지냈다. 내가 어려울 것도 없는 이사 떡에 쉽사리 그러자고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작년 직장에서의 떡이 가져온 작지 않은 파란 때문이었다.

그때는 날이 더워지려는 6월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립 공공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나는 병동 수간호사인 K간호사 아래서 일하고 있었다. 정신과 병동의 특성상, 재원환자 숫자는 많지 않아도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 많았다. 망상이나 환청으로 충동공격적 행동이 심해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 하나까지 주의해야 하는 환자부터, 자해나 자살시도를 막기 위해 도구가 될 수 있는 끈 종류나 비닐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일이 확인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환자가 대다수였다.

그 중 L환자는 눈에 띄는 환자는 아니었다. 치료진이나 다른 환자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입원 시에 호소하던 정신과적 증상들도 많이 나아져서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원을 앞둔 환자였다. 그래서인지 모든 이들이 L환자의 퇴원은 병동 일과 중에 조용히 녹아들어 지나갈 것으로 짐작했었다.

대수로울 것 없을 듯했던 L환자의 퇴원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저녁 근무를 위해 오후 출근을 하는 내게 그가 두고 간 떡 한 박스가 눈에 띄면서부터였다. 그 떡의 사연인즉, L환자가 퇴원하며 우리 병동 근무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수줍게 전달하려던 떡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입원환자로부터의 음료수 등

의 소소한 감사 표시가 없었던 바는 아니었으나, 그해 봄에 시작된 김영란 법의 영향으로 병원 내부의 철저한 지침이 있었다.

낮 근무 간호사가 교육받은 대로 “성의는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는 조금 당황했지만 수줍은 듯 수긍하고는 떡을 들고 돌아섰다고 한다. 그런데 그 떡은 암전히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덩그러니 병동 문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L환자는 온데간데없었다. 간데 온데없는 것뿐 아니고, 사유를 짐작해서인지 병원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쯤 되면 못이기는 척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평소 심지가 곧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K간호사는 내게 “절대 먹지 말 것, 다시 가져가도록 연락할 것” 을 당부하고서 퇴근을 했고, L환자는 초조한 내 전화를 절대로 받지 않았다.

하필 이 떡을 김영란 법이 실행된 이후에 두고 갈 것은 뭐고, 또 하필 그걸 내가 보게 되는 것은 뭐란 말인가.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해서 저 떡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물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떡 박스만 원 무과로 넘기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긴 한숨 뒤에 이어진 새된 소리로,

“아니,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대체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놓고는 나한테는 어찌라는 말인지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적발사례로 신고당하거나 하면 전부 본인 책임인 건 알고 계시죠? 다시 돌려주도록 하세요.” 라며 나를 혼내다가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전화가 울리자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걸 몰라서 거반 백년이 되도록 분단국가로 지내는 것 같으냐며 그녀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관절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통일을 하며 안 받겠다고 작정한 사람한테 물건을 무슨 수로 돌려 주냐 말이다. 안되면 되게 할 만큼 유능하지 못했던 나는, 별 수 없이 그 떡 박스를 다음날 출근한 K간호사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고, 떡 박스를 받아든 그녀는 어제의 담당자처럼 한숨을 깊게 내 쉴 뿐이었다.

병동사람들이 머리를 모아, 이미 떠나간 L에게 여러 차례 ‘마음은 충분히 받았으니 떡을 찾아가시라’ 는 종류의 메시지를 남기고는 병동 문 앞에 떡을 그대

로 갖다놓았다. 사실 그가 떡을 다시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고 우리 모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떡의 존재를 누구도 책임지기 싫었으며, 터져도 안전한 병실 밖에 놓아두고 서로가 한껏 몸을 사렸다는 편이 맞았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떡 사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병동 출입문 앞에 앉아 어제보다 더 부패되어가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떡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면서 나는 며칠간의 오후 근무를 위해 출입문을 지났다.

결과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처리한 것은 K간호사였다. 그녀는 근무시간을 쪼개어 여기저기 손수 전화를 해 알아보더니, 어렵게 찾은 담당부서 두 군데서 나처럼 긴 설교와 교육 끝에 ‘당장 돌려주도록’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한숨을 쉬어 말했다. 한숨 속에서는 김영란씨가 언제든 뽕을 달고 그녀를 쫓아올 것 같은 불안이 배어있었다.

며칠이 지나 우리는, 담당자가 여기저기 수소문한 지침에 따라 병원에 남아있던 L의 주소로 떡을 반송하고 발송 송장을 첨부하여 서류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했던 작년 여름의 떡 사건으로 인해 나는, 부패는 박스 안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깊어가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언제든 포자가 움아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크게 가지게 되었다. 앞뒤 내용을 모르는 누군가가 그 떡을 받아서 접시에 예쁘게 놓고, 설명도 없이 함께 먹자고 했다면 나는 군말 없이 한 접시를 깨끗이 비웠을 게 분명하다.

전혀 의도한 바 없지만 내가 ‘받은’ 것이 되어버렸던 그 떡은, 세상 더없을 것 같았던 그 억울함은, 내가 살면서 휘말릴 수 있는 다양한 오해의 프롤로그가 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예감이 되었다.

이후 우리 병동은 K간호사의 지휘 아래에서 그간 관례처럼 해오던 것들을 과하다 싶게 즐기고, 없앴다. 모든 회식 전에 각자 계산하기로 사전에 공지했고, 특정인의 생일,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도 더는 챙기지 않았다. 병동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찾아오는 신입 간호사나 퇴직한 간호사들의 빵 한 봉지도 받지 않게 되면서 떡 사건 이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받았다’ 혹은

‘받지 않았다’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을 경험한 근무자들은 모두 두말없이 동참했고, 다소 각박하다 싶게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에서 그 해를 보냈다.

해가 바뀐 지금은 내가 근무지를 바꾸면서 K간호사도, 다른 병동사람들도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번, 가까운 지인에게 병원의 수술 스케줄의 빈 시간을 확인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맞는지만 확인해 달라는 쉬운 부탁이었다. 이전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귀뜸을 해주었을 텐데, 예민해져서 잔뜩 움츠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었다.

듣고 보니 같이 일하는 상사가 우리 병원 진료를 보고는 수술 일정을 원하는 만큼 가까이 당기기 위해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였다. 상사는 자신에게 부탁한 적 없지만 개인적인 충심이라는 사람 좋은 너털웃음까지. 이렇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표정의 하얀 떡이 내 앞에 배달된 것이다. 나는 두말없이 청렴교육 때 받았던 교육 자료의 페이지를 넘겨서, 병원진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청탁임을 알려주고,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지인은 서운해 하기보다는 고마워하면서 뒷머리를 긁적였고, 나는 혹시 내 태도가 예민하게 느껴졌다면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그날의 대화를 마쳤다.

부패는 정치하는 높으신 분 혹은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은색 007가방에 담겨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부패를 대하는 나의 모습은 꺾이나 까먹으며 남자 주인공을 바라보거나 혀를 꼴꼴 차며 뉴스를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부패는 어느 순간에 순진무구한 관례와 감사, 충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미세먼지처럼 퍼져서 결과적으로 모두를 잠식시켜버리는 것이었다. 일련의 사건 후에 나는 떡 한 박스가 내게 불러왔던 불안감과 당혹감을 기억하며, 공공기관 소속의 현직 직원으로서 행여나 안개처럼 번지는 부패에 휩싸이거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소 과하게 예민하고, 고지식한 자세를 견지하는 중이다.

며칠 있다가 신랑이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옆집 인사는 둘이 손잡고 빈손으로 가는 건 어떠냐고 한번 툭 던져봐야겠다.